



22142280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13 May 2014 (morning)
Mardi 13 mai 2014 (matin)
Martes 13 de mayo de 2014 (mañana)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지구의 날” 탄생 의미를 되새기며

①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전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구의 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 운동에서 출발했으며,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 의원이 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처음으로 선언한 것에서 유래했다.



② 당시 하버드대 재학생이 주도로 첫 행사에 2천만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의식에 대한 연설과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 집회에 참가했다.

③ 1972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 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 환경 선언” 채택 등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경제 성장 논리 등에 밀려 20여 년 동안 중단 되었다가 1990년에 제2회 대회가 미국의 “Earth Day 1990” 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이후 매년 민간 환경단체 주도로 지구의 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④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2002년부터 제주시 의제21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7일 오후 산지천 주변에서 차량을 통제, “지구 환경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대 행사, 체험 및 홍보관, 나눔 장터, 자전거 대축전 등 분야 별로 행사장을 마련, 지구 환경 보전과 2020년 제주가 세계 환경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 생활 습관을 느끼고 실천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살랑대는 봄 냄새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뿐인 지구의 날 탄생 의미를 찾아 산지천변 거리를 헤매어 봄이 어떨까요?

<미디어제주> 2012 (각색 됨)

본문 B

착한 댓글이 행복 울산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선플 학부모 지원단, 성남동 일대서 “선플 캠페인”

❶ 울산 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김복만) 선플 학부모 지원단은 (회장 이경숙) 2월 14일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남동 일대에서 선플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❷ 올바른 언어와 인터넷 문화 조성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에서는 김복만 교육감, 울산 지방 경찰청장, 중부 경찰서장,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해 올바른 댓글 문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❸ 캠페인 참여자들은 “착한 댓글이 행복 울산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행복 울산교육, 선플에서 시작됩니다!”, “착한 댓글이 울산을 밝게 합니다!”, “선플은 생명도 살립니다!”, “졸업식 문화 선플 달기로 실천합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중구 성남동 만남의 거리에서 젊음의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❹ 김 교육감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교육이 울산의 미래이듯이 학생 모두는 울산의 미래”라며 “선플 운동이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키워나가고 배려와 존중 문화를 가꾸어 가는 행복 울산 교육의 실천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❺ 선플 학부모 지원단은 울산 교육청으로부터 작년 11월 위촉 받아 학부모간 소통과 정보 공유, 선플 달기와 언어문화 개선, 부모 자녀간, 사제간에 SMS (short message service) 문자 개발 등 감사와 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등 밥상 머리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❻ 울산 교육청 학생 생활 교육과 강미옥 장학사는 “이번 캠페인은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이버시대의 정신문화 활동이며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운동”이라며 “선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학교는 학교 폭력 사안이 없거나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 운동이 학교 폭력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2013

본문 C

새의 선물*

- ① 허석은 그 가을 이후 나와 이모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자기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모와 나 각자에게 단서를 한 가지씩 남겼다. 우리는 그가 떠난 뒤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었지만 삶의 미묘한 원격 조정에 의해 멀리 떨어진 그와 정식으로 이별의 의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 ② 석은 아니었다.
- ③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 ④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었다.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거였다.
- ⑤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 나. 이리 가까이 와 봐, 아저씨한테. 자, 어서.”
- ⑥ 제방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느니 폐병환자가 산다느니 하는 말이 헛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쳐야 했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삶에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다.
- ⑦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X-]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 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 버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33-] 울었다.
- ⑧ 죽은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길 했었다.



- 9 숲속에 마른 열매 하나가 툭 떨어졌다. 나무 밑에 있던 여우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멀리서 호랑이가 그 여우를 보았다. 꾀보 여우가 저렇게 [- 34 -] 떨어 때는 분명 굉장한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도 뛰기 시작했다. 호랑이의 뛰는 모습을 숲속 동물들이 보았다. 산중호걸인 호랑이기 저렇게 도망을 칠 정도면 굉장한 천재지변이거나 외계인의 출현이다. 그래서 숲속의 모든 동물이 다 뛰었다. 온 숲이 뒤집혀졌고 숲은 그 숲이 생긴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 10 삶도 그런 것이다. 어이없고 [- 35 -] 우연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뜻을 캐내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농담인 것이다.

은희경 <새의 선물> 1996

*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외할머니, 삼촌, 이모 등과 함께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열 두 살 소녀 진희이다. 허석은 진희 삼촌의 친구인데 진희는 그 허석이 산에서 염소와 하모니카를 부는 모습에 반한다. 그러나 허석은 이모에게 관심이 있다.

본문 D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성공 주역 이석우 대표이사



- ① “국산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은 나이 세대 불문하고 전국민이 소통하는 장이 됐다. 이처럼 국내 메신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톡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석우 (주)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가지고 카톡이 어떻게 시작됐고 성장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린 것이다.
- ② “2006년 (주)카카오를 설립한 후 3년 동안 이런저런 사업들이 거듭 실패했다. 실패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빨리 구현해내야 하는데 이리저리 고치다가 타이밍을 놓쳤고, 또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자만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실패는 큰 약이 됐다.
- ③ 3년을 허비한 후 회사를 접을까 고민하던 중에 새로운 환경이 열렸다. 2009년 7월 KT에서 아이폰 디바이스를 들여오면서 스마트폰이 시작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볼 기회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모바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해보자고 생각했다. 직원 4명씩 3개 팀을 짜서 각 팀마다 소통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만들게 했다. 2010년 세 가지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카톡이 그 중 하나였다. 3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 카톡이 단연 압도적이어서 카톡에 올인 했다.
- ④ 카톡은 스마트폰 영업점의 홍보에 많은 힘을 입었다.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영업점에서 무료 메시지 서비스인 카톡을 홍보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과 카톡의 인기는 비례하며 상승했다. 카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곧 1억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1억을 넘는 모바일 서비스는 많지 않다.”
- ⑤ 이 대표이사는 연설에 이어 패널 및 참석자와의 질문 대답 시간도 가졌다.
- ⑥ 카톡이 언론이나 다른 매체들과 유통을 공유할 방안이 있는가? 매체들은 요즘 콘텐츠 유통에 대해 관심이 많다.
“카톡페이지에 어울리는 것은 속보성 기사보다 잡지처럼 깊이있는 콘텐츠일 것이다. 언론사의 콘텐츠 유통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 아직 답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종이에 썼던 것을 모바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⑦ **카톡 해외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글로벌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이 느려져 그 개선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 플랫폼 개선 대신 해외 투자에 더 신경을 썼다면 카톡은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은 쉽지 않아서 우선 일본,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폰이 들어간 국가 위주로 공격할 생각이다.”

- ⑧ **카톡 회원 수는 얼마나 되며 연령 별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카톡으로 인해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줄어들고 단절되고 있다. 이를 [-43-]할 방안은 없는가?**
 “회원 수는 9700만이며 곧 1억을 돌파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9700만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증 전화번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 수로는 9700만보다 적다. 사용자 전화번호만 있어 유저들의 연령대에 대한 [-44-]은 불가능하다. 카톡으로 인해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45-]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규제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 교육으로 푸는 것이 [-46-]하다는 생각이다.”

<인터뷰365> 2013 (각색 됨)

본문 E

그 마을이 환해진 이유! 회기동 벽화마을에 가다

- ❶ 담장, 벽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와 남을 구분 짓는 경계선,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 놓고 문을 열어 놓고 이웃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높이 쌓여있는 벽은 굳게 닫힌 마음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만 같습니다.
- ❷ 이웃을 구분하고 나를 지켜주는 일차원적인 기능적인 담이 미술적으로 승화되어 바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학로 뒤쪽에 위치한 이화마을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어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있는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상징되는 벽이 알록달록 미술의 손길을 거치면서 마을 전체가 생기가 넘치고 살아있고 생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 ❸ 또 새로이 소개드릴 곳은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 회기동에서도 올해 5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경희 대학교 미술대학 소속 교수진, 학부생, 미술 동아리 회원 등이 모여서 벽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술학부 학생들은 전공 수업 중 “공공미술”이라는 과목의 일환으로 골목에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약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번 벽화 사업은 향후 회기동 전체가 아름다운 벽화가 가득하도록 꾸미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 ❹ 벽화가 그려진 회기동 골목길은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으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입니다.



➤ 취업, 등록금, 대학생들의 고민을 표현한 벽화



➤ 가뭄에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 ❺ 이 곳에서 볼 수 있는, 젊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직접 그린 그림들은 20대의 꿈, 고민,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20대 길을 묻다”, “골목에 핀 꽃”, “20대 시련의 길” 등의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만의 참신한 생각들로 골목을 표현했습니다.

- 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걱정해서 빚쟁이가 아닌 사회인으로 졸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림, 유인원에서부터 진화해 온 인류가 패스트푸드 때문에 비만이 되어서 결국 돼지처럼 변해간다는 그림은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위트를 대학생만의 기질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알록달록 따뜻한 그림이 담과 대문과 멋지게 조화를 이룬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은 어떤 그림들을 직접 보고 싶습니까?

- ⑦ 지금 현재 250여 점의 벽화가 완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종합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희대는 캠퍼스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벽화마을이 점차 확대되면 대학 캠퍼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있는 동네 전체가 아름다운 골목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여러 분들, 직접 오셔서 이 아름다움을 확인하세요.

<서울 특별시> 2012 (각색 됨)